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15호

2020. 04. 17.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mailto:nojo@hanyang.ac.kr)

## 인력 충원 필요 - 시대학원 선정을 축하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분야고급인재양성 거점 지원 사업에서 서울은 '시대학원', ERICA는 AI융합연구센터를 동시에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지속적으로 서울, ERICA를 분리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한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과 야근과 철야를 감수하고 한양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합쳐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나무가 높으면 그늘이 짙다고 했던가. 국고 수주 성공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는다. 직원들은 새로 시작될 사업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운영할 예산은 증가했지만 정작 그 예산을 운용할 정규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룩한 성과에 겸직으로 답해왔다. 8관왕이니 몇 관왕이니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직원사회에 돌 정도로 무리한 겸직발령이 만연해 있다.

단과대학의 경우 직무제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계약직 3명을 정규직 1명으로 전환해 인력을 대폭 감축하였으나, 학과의 단순 심부름성 업무까지 강제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겸직 남발과 쥐어짜기식 인력관리는 행정의 번아웃을 초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주40시간근무제' 위반을 강요하는 인력구조는 불법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

국고 사업 수주가 역설적으로 인력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인력문제 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수주액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목소리다. 한양의 발전이 나의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대학은 합리적인 인력수급계획 세워 응답해야 할 것이다.

##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 대의원회 승인

2020년 4월 16일(목) 오후 3시, 서울 신본관 제2회의실과 ERICA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노동조합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회는 19대 집행부가 제안한 ‘2020년 임금·단체협약(안)’ 과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권 위임’ 을 심의하였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승인하였다. 노동조합은 승인된 임금·단체협약(안)을 대학 당국에 전달하고 5월 중 첫 임금·단체협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단협 승인 투표 후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2020년 교직원 하계휴양지 처리 방법’ 을 함께 고민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 투표 결과

안 건	대의원 수	참석자 수 (위임 포함)	참석률	찬/반
1) 2020년 임금·단체협약(안) 승인	41명	29명	70.7%	26/3 (89.7%)
2)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권 위임				28/1 (96.6%)

\* 임금·단체협약(안)을 2020. 4. 20(월)부터 구역 대의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2020년 임·단협 교섭위원 명단

위 원 명	노조 직책	원소속	비고
신남호	위원장	노동조합	교섭대표
오세진	수석부위원장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교섭부대표
이장현	ERICA부위원장	공학대학RC 행정팀	교섭부대표
송혜림	교육부장	백남학술정보관 연구정보팀	교섭위원
박준표	복지부장	LINC+사업단 LINC+사업팀	교섭위원
김정수	사무국장	노동조합	간사

### □ 2020년 하계휴양지 시행 방안 논의

△시행연기, △동계휴양지로 이전, △미시행, △관련 예산을 코로나 특별장학금·특별수당 등으로 전용, △기존 계획대로 하계휴양지 시행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시행연기와 미시행(예산반납) 관련 의견이 우세하였고 신남호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의견을 더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 끝.